



“흡연, 뇌기능 저하 촉진한다”

흡연이 노화에 의한 뇌기능 저하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에라스무스 메디컬센터의 알레비존 오토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신경학' 최신호(3월 23일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노화에 따른 뇌의 인식기능 저하가 5배나 빨리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토 박사는 65세 노인 9,209명을 대상으로 흡연 습관을 묻고 인식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신경기능검사를 실시한 다음 2~3년 후 이 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해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 것으로 의학뉴스 전문통신 헬스데이 뉴스가 22일 보도했다.

30점 만점인 인식기능검사서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은 노화에 의한 인식기능 저하 수치가 매년 평균 0.03점 낮아진 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0.16점으로 5배나 인식기능이 빨리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 인식기능을 저하시키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만성적인 니코틴 노출이 뇌의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일과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오토 박사는 말했다.

(조선일보 2004. 3. 23)

복지부 '생명윤리 태스크포스' 설치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명윤리·안전 태스크포스'를 설치, 내년 생명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태스크포스는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운영, 내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 등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가 유사종교단체 등의 인간복제에 악용되는 것을 막되 제도적 틀 안에

서 회귀·난치병 치료를 위해 이뤄지는 연구는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불임치료병원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 검사기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세부적인 시설·인력 기준을 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에 담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건정책국에 생명안전과를 만들거나 질병관리본부에 집행조직을 두는 등 생명윤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일보 2004. 3. 8)

健保 적용 항암치료제 확대

내달부터 혼합복용 허용

현재보다 20%인하 효과

이르면 3월 중순께부터 몇 가지 항암제를 섞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제가 풀리고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런 규제 탓에 큰 불편을 겪었던 위, 폐, 유방암 환자 중 상당수는 지금의 20% 가격으로 다양한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암제위원회 논의의 거쳐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중순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풀리는 규제는 항암제 병용(並用) 사용 및 용법 제한과 관련된 21개(9개 유형)다. 지금은 위암 환자가 캄푸토(소량)와 시스플라틴을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같이 쓰지 못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부담으로 몰래 사용해 왔다. 적발되면 의사가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은 6회 기준으로 환자가 약값 전액(최소 62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23만원만 내면 된다.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난소암 등에 사용하는 탁솔의 경우 지금은 3주에 한번씩 6회 맞도록 식의약청에 허가가 나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일 뿐더러 보험도 안 된다. 의료계에서는 매주 조금씩 나눠 맞으면 부작용이 적다며 이 방식을 몰래 사용해 왔다. 앞으로





는 이 치료법이 합법화되고 환자 부담도 6회에 1,000만~1,400만원에서 200만~28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 위암환자에게 탁소텔과 시스플라틴, 5-FU를 ▶ 비소세포 폐암환자에게 젤자와 나벨빈을 ▶ 소세포 폐암환자에게 캠프토와 시스플라틴을 함께 사용하고 환자 부담이 약값의 20%로 줄게 됐다. 다만 나벨빈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중앙일보. 2004.2.27)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개설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사장·임지순)는 알코올문제를 예방하고, 치료·재활할 수 있는 알코올문제 종합연구센터 및 알코올 의존증 전문치료병원을 최근 열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위치한 이 병원은 180병상 규모로, 내과과사·정신과과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의 치료참여를 높인 맞춤형 서비스, 가족들을 위한 가족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031)810-9085

(조선일보 2004. 3. 9)

취침 전 양치 안하면 충치균 30배 증식

‘저녁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세요’

저녁식사 후에 양치를 안 하거나 입을 헹구지 않은 채 잠을 자면 입안의 충치균이 밤새 30배나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일본 생활용품업체인 라이온이 20대~50대의 남자 12명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후,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 3번 티액을 발도록해 침속에 들어있는 충치의 원인균인 유스탄스균 증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저녁 식사후 양치를 안 하거나 입을 헹구지 않으면 유스탄스균이 10~48배, 평균 30배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액은 입속의 세균이나 음식을 찌꺼기를 씻어내는 작용을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분비량이 줄기 때

문에 유스탄스균의 증식이 활발해 진다는 것.

라이온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전 양치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4.3.21)

“채소·과일·우유 매일 먹어라”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영양학적 특성을 고려해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4개 연령층별 ‘식생활 실천지침’을 1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를 위한 식생활 실천지침으로 생후 6개월까지는 반드시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은 성장단계에 맞춰 먹일 것과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등 다양한 식품을 먹일 것을 권장했다.

또 임신, 수유부에게는 △우유 제품을 매일 3회 이상 먹을 것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을 매일 먹을 것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을 것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말 것 △커피,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 함유식품을 적게 먹을 것 등을 권했다.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실천지침으로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을 것 △고기, 생선, 달걀, 콩 제품을 골고루 먹을 것 △매일 밖에서 운동하고 알맞게 먹을 것 △아침을 꼭 먹을 것 △간식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먹을 것 △음식을 낭비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에게는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을 것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을 것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을 것 △음료로는 물을 마실 것 △아침을 꼭 먹을 것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연령별 식생활 실천지침을 학교, 보건소, 보육시설, 병원 등에서 영양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2004. 3. 18)